



번역, 소설, 신화 연구의
세 봉우리에 우뚝 선
교양인

이윤기



살의 에너지는 콤플렉스와의 화해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부터 옵니다. 전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고 그저 꾸물꾸물 올라갈 때 가장 높은 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 올리버 크롬웰의 말을 믿어요. 누구도 하루 여덟 시간, 꼬박꼬박 한눈팔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을 당해 낼 수 없지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윤기의 말



- 1947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두북동에서 태어남.
- 1958 우보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대구로 이사
- 1965 고등학교 중퇴
- 1967 검정고시를 거쳐 신학대학 기독교학과에 진학
- 1972 군 제대, 1년간 건설 공사장을 다니며 일을 함.
- 1974 공동 작업으로 《니체전집》 번역
- 1977 단편소설 〈하얀 헬리콥터〉가 중앙일보 신춘문예 입선. 최초의 단독 번역서 《카라카스의 아침》 출간
- 1986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번역 출간
- 1991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대학 초빙연구원 초청받아 도미
- 1994 장편소설 《하늘의 문》 출간
- 1998 제29회 동인문학상 수상
- 1999 신화연구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 출간
- 2010 별세, 유작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5》 출간이 됨.
- 2012 추모 문집 《봄날은 간다》 출간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책을 좋아했다. 맘껏 책을 보려고 중학교에 올라가 학교 도서관 사서에 지원하였다. 보통 사람은 평생 읽기도 힘든 수천 권의 책을 중학생 때 읽었다. 번역서를 읽다가 원서를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원서를 읽으며 영어 실력이 부족함을 자각했다. 실력을 키우려고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일에 도전했다.

영어 다음엔 일어 공부를 시작했고 이어서 독일어를 공부했다. 밤새 책을 읽다 보면 간혹 코피가 뚝 떨어지곤 했다. 걱정보다 호뭇한 마음이 앞섰다. 혼자 힘으로 새로운 지식, 사상, 언어의 세계를 파고드는 자신이 대견해서였다.

소년은 음악도 좋아하였다. 또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소년은 학교에 몸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다. 서울 이화여대 강당에서 외국의 유명 음악단 연주회가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서울 갈 차비가 없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걸어서 서울에 갔다. 일주일이 걸렸다. 다리가 옥신거리는 것도 잊고 연주를 잘 감상했다. 대구로 내려왔다. 이번에도 걸었다.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대구에 오는 데 13일이 걸렸다. 피곤했지만 행복하였다. 바라던 걸 하였으니까.

남다른 청춘을 보낸 이 소년의 이름은 이윤기이다. 이윤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베스트셀러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도 이 책을 읽고 신화의 세계에 눈을 떴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윤기가 일군 광대한 지성의 세계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는 최고의 신화학자인 동시에 200권이 넘는 책을 번역한 사람이었다. 또 많은 소설을 발표했고 여러 문학상도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성취를 독학으로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

50년의 인생 계획

이윤기는 1947년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두북동에서 태어났다. 첫돌이 지날 무렵 아버지를 잃었다. 7남매의 막내아들 이윤기는 가난 탓에 초등학교 시절 고향을 떠나 대구로 갔다. 공부 잘했다. 초등학교 때 부잣집 동급생 친구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돈을 벌었을 정도였으니.

지역의 명문 경북중학교에 입학했다. 자존심이 강해서 부잣집 아이들이 많은 학교 안에서도 기죽지 않았다. 성적도 상위권이었다. 책을 빠진 후 사정이 달라졌다. 바닥권이 되었다. 초조하진 않았다. 명문대 진학은 별 관심이 없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사이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집에서 독립했고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석 달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공장의 작업대처럼 돌아가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놀진 않았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더 깊이 외국어 공부를 하였다. 친구들이 가지 않는 길,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는 길이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학은 검정고시로 진학했다. 성경을 읽고 종교에 관심이 생겨 신학대학에 들어갔지만 결국 중퇴하였다. 그사이 청년이 되었고 군대에 갔다. 이때 처음 소설을 썼다. 잠을 줄여 군수품으로 지급되는 종이에 습작을 하였다. 베트남 전쟁에도 나갔다.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도 시간이 날 때면 책을 읽었다. 월급을 받으면 책을 사는 데 썼다.

베트남에 있을 때 쓴 단편 소설 〈하얀 헬리콥터〉가 197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했다. 문학세계에서 신춘문예 공모에 뽑히는 건 정식으로 작가 데뷔를 하였다는 증명이다. 어릴 적부터 바라던 작가가 되었다고 우쭐해하진 않았다. 좋은 작품을 쓰기엔 실력이 모자람을 인정했다. 또 당장 먹고살려면 번역을 해야 했다.

그는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고, 긴 인생 계획을 세웠다. ‘일단 번역에 매진한다. 번역을 통해 언어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연마한 후 소설을 쓴다. 죽기 전에 100권의 책을 쓴다.’는 계획이었다. 훗날 그는 이 계획을 거의 다 이루어 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 때문에 소원했던 만큼의 소설을 쓰지 못했을 뿐이다.

1977년 그의 이름으로 최초의 번역서를 펴냈다. 앙리 샤리에르(탈옥 영화 〈빠빠웅〉의 실존 인물이자 소설가)의 《카라카스의 아침》이란 작품이었다. 이후 한 해에 많을 땐 열 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였다. 1980년대가 되었을 때 이윤기라는 이름은 실력 있는 번역가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게 되었다.

독자는 번역서를 읽을 때 작가 이름은 기억하지만 번역가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윤기는 1986년 그의 이름을 원작자 못지않게 유명하게 만든 걸작 번역 작품을 내놓았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었다.

훗날 이윤기는 《장미의 이름》번역이 언어와의 전쟁이었다고 회고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엔 수많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가 등장한다. 몇 명의 언어학자가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 책이었다. 이윤기가 보기에, 여러 사람이 번역에 참여하면 작품의 완결성이 떨어질 것 같았다. 혼자 힘으로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한 문장을 온전히 해석하는 데 며



칠이 걸린 적도 있었다.

《장미의 이름》 번역 후 그는 번역가의 귀감이 되었다. 그런데 책이 나온 후 살펴보니 몇몇 오류가 있었다. 번역가로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오류를 수정해 1992년 개정판 《장미의 이름》을 다시 펴냈다.

번역은 그에게 밥벌이 수단이자 좋은 문학 수업이 되었다. 한 단어를 번역하더라도 그 의미와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 하나의 한국어를 찾아내는 것이 좋은 번역이다. 또 좋은 번역 문장은 작가의 원문처럼 매끄러워야 한다. 그는 번역을 통해 어휘 공부를 하고 문장 공부를 할 수 있었다.

1990년대가 되었다. 이윤기는 이때부터 신춘문에 입선 후 계획했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번역 작업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그는 동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빼어난 소설가의 자리에도 올라섰다.

이 시기에 그가 또 하나 깊이 파고든 게 있었다. 신화 연구였다. 신화는 소년 시절부터 그를 매료시켰던 주제여서 이미 웬만한 책은 다 읽은 터였다. 그러나 세상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신화의 세계도 파면 팔수록 공부할 게 많았다.

가장 유명한 신화인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를 위해 유럽에서 4개월간 취재 여행도 하였다. 이 작업은 2000년 신화 연구서인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 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신화 교양서가 된 이 책은 훗날 5권의 시리즈로 완성되었다.

이윤기가 번역가, 작가, 신화학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했을까.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아웃사이더의 입장에서 출발했다. 번역자로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에겐 자기 존재를 객관적으로 포장해 줄 변변한 학력이 없었다. 작가 세계에서든 후원하는 선배, 어울리는 동료는 별로 없는 무명에서 출발했다.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냉대와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많은 학술 서적도 번역했는데, 한국의 학자 중에선 자기 논문에 책을 인용할 때 이윤기가 번역한 책을 인용하지 않고 원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위가 없는 사람의 글은 인용할 수 없다는 못난 권위주의였다.

세상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무시한다고 기죽지 않았다. 머리를 숙이지도 않았다. 차별이 넘쳐나는 세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도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쪽 하였다.



국내에 신화 열풍을 몰고 왔던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동아일보

장벽은 세월이 흐른 후 스르르 허물어졌다. 번역의 경우, 그가 대학을 중퇴했다고 그의 번역 수준을 깔보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었다. 소설의 경우, 그의 작품에 매료된 평론가와 작가와 독자들이 그에게 우르르 다가왔다. 신화의 경우, 그 어떤 전문 학자보다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세상이 알아서 그 앞에 다가와 그의 노고와 실력을 인정해 준 것이다.

21세기가 되었을 때 이윤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교양인이 되었다. 2010년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타계했을 때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 차원을 벗어나 대한민국 지성계의 큰 상실로, 많은 이들의 슬픔이 되었다.

그는 갔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우리와 함께 있기도 하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많은 책이 대한민국 곳곳의 도서관과 서점에 있다. 또 그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뇌리에 그리운 사람으로 또는 닮고 싶은 롤 모델로 남아 있다.

패기, 스타일, 정진

어떤 힘이 이 놀라운 성취를 가능하게 했을까. 필자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윤기를 기억할 때 그의 작품 못지않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미덕이 아닐까 한다.

‘패기’, ‘스타일’, ‘정진’이 그것이다.

패기는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내겠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뜻하는 말이다. 이윤기는 패기 있는 사람이었다. 듣고 싶은 음악을 위해 서울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학생 시절에도, 전문가 몇 명이 힘을 합쳐도 버거웠던 《장미의 이름》번역을 혼자 해 보겠다고 뛰어들었던 순간에도 그는 패기만만하였다. 어려운 일에 따르는 고생과 수고를 미리 겁내지 않았다. 그가 생전에 한 표현대로라면 ‘그래! 한번 붙어 보는 거야.’ 하는 태도로 도전했다.

또 이윤기는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었다. 스타일 그러면 흔히 겉모양을 개성 있게 꾸미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스타일이다. ‘스타일이 있는 사람’이란 ‘튼튼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다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이윤기는 명문대 진학이나 출세 같은, 남들이 가는 길을 덩달아 따라가지 않았다. 자기가 가



고 싶은 길을 걸어갔다. 길이 없으면 직접 길을 만들었다. 독서, 음악, 공부와 연구 그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하였고, 알고 싶은 것을 알려고 하였다. 자존감으로 다쳐진 이 자기다움을 간직하였기에 그에겐 무엇에도 억눌림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향기처럼 흘러나왔다. 그는 빼어난 지성인, 교양인이자 자유인이었다.

이윤기는 정진(精進 ; 정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아감)의 힘을 증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정진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다. 몸과 영혼의 에너지를 불살라 꾸준히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수준의 노력이 정진이다. 이윤기는 평생 정진한 사람이었다.

이윤기가 타계한 1년 후인 2011년 그를 추모하는 문집 《봄날은 간다》가 세상에 나왔다. ‘봄날은 간다’는 오래전 유행가 제목이다. 그는 생전에 이 노래를 좋아했다. 그런데 ‘봄날은 간다’에는 사람이 태어나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윤기의 철학이 담겨 있다.

그는 여행길에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세월의 줄에 방울을 달지 못한 사람은 ‘봄날은 간다’는 노래가 얼마나 가슴 아픈 노래인지 잘 안다네. 열심히 준비해서 시간의 열차에 올라 탄 사람은 창밖의 풍경을 보며 중간 역들을 지나 언젠가 ‘서울역’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지.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는 인생의 열차에 타지 못한 사람에게 ‘봄날은 간다’는 눈물 없이는 부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노래일세.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추모문집 《봄날은 간다》 p.275)

이윤기,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월의 줄에 방울을 달아 어릴 적 자기가 바라던 역에 도착하였던 사람이었다.

김인기



생각거리

이윤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윤기는 우리 사회 지식층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학벌이 없다. 그렇지만 그는 열정 하나로 여러 외국 어들을 섭렵했고, 웬만한 전공자보다 뛰어난 학식으로 푸코의 저작을 번역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썼다. 그리고 창작에도 매진하여 소설가로서도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학생들의 경우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의 꿈과 열정마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윤기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에서의 목표와 열정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인지 결코 좋은 대학과 같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